

사회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 인터뷰

“진보와 보수 조화로
광주교육 경쟁력 높일것”



장휘국(59)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는 9일 광주일보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진보와 보수의 조화를 통해 광주교육의 경쟁력을 높일것”고 밝혔다.

장 당선자는 또 “비리척결과 학생 자율권 확대 등 교육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기겠지만, 실적광주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시 교육청의 7.9월 교원인사와 관련해서는 “현 안순일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만큼 잘 하길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오는 11월 취임 이후 시민과 약속한 각종 공약을 추진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인사가 발견된다면 다시 인사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장 당선자와의 일문일답. -주요 공약인 교육비리 청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비리 신고직통전화 운영하고, 외부 감사제를 도입하겠다.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면 ‘원아웃제’를 적용해 ‘제 식구 감싸기식’은 정주의를 불식시키겠다.

-진보성향의 교육감인 만큼 급격한 개혁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선거기간동안 진보교육감 색채를 분명히 한 탓에 이를 우려하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감 취임 이후에는 이 색채를 그대로 가져가기 어렵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성향 뿐 아니라 중도, 보수층의 지지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정치권처럼

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광주 교사들의 능력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광주교사들은 20년 이상 실적광주를 유지해온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광주는 특히 전국에서 전교조 교사 비율이 가장 높고, 학생의 실력도 최고다. 전교조가 내세운 ‘참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전교 단위 일제고사는 반대인가.

▲그렇다. 다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일제고사를 광주만 거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 5명과 연대하는 한편, 전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일제고사 성격 공개 반대와 표집단위 고사 시행을 정부에 건의하겠다.

-인사원칙은 무엇인가.

▲취임 시기가 5개월이나 남아 있는 만큼 아직 말하기엔 이른 단계다. 다만 확실한 것은 깨끗하고, 공정하게 하겠다. 믿고 지켜봐 달라.

-현 안 교육감에게 7월 일반적인 사와 9월 교원인사 협의를 요청했는데.

▲인사는 안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다. 다만 인사를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왜냐하면 11월 취임과 동시에 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해결해 낼 수 있는 인적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은 빠른 취임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중학생은 2011년부터 추진하겠다. 다만 광주시의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에게

‘교육비리 신고 직통전화 ‘원아웃제’ 도입’

“참교육·실력광주 함께 가도록 제도 보완”

진보나 보수 등 한쪽으로 가면 안된다. 전체적 의견을 받아들여 보수와 진보의 조화를 이뤄내겠다.

-공약으로 내세운 ‘실력광주’ 유지와 ‘입시지옥’ 해소는 딜레마가 아닌가.

▲사실 가장 큰 고민이면서도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다. 우선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심화학습을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에 맡기겠다. 학교에서 붙잡아두지 않으면 실력이 떨어

교육과 ‘실력광주’가 함께 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조금만 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면 실력과 행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본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 시기는 언제인가.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은 빠른 취임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중학생은 2011년부터 추진하겠다. 다만 광주시의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에게

“교육비리 신고 직통전화 ‘원아웃제’ 도입”

“참교육·실력광주 함께 가도록 제도 보완”

진보나 보수 등 한쪽으로 가면 안된다. 전체적 의견을 받아들여 보수와 진보의 조화를 이뤄내겠다.

-공약으로 내세운 ‘실력광주’ 유지와 ‘입시지옥’ 해소는 딜레마가 아닌가.

▲사실 가장 큰 고민이면서도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다. 우선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심화학습을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에 맡기겠다. 학교에서 붙잡아두지 않으면 실력이 떨어

교육과 ‘실력광주’가 함께 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조금만 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면 실력과 행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본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 시기는 언제인가.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은 빠른 취임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중학생은 2011년부터 추진하겠다. 다만 광주시의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에게

“교육비리 신고 직통전화 ‘원아웃제’ 도입”

“참교육·실력광주 함께 가도록 제도 보완”

진보나 보수 등 한쪽으로 가면 안된다. 전체적 의견을 받아들여 보수와 진보의 조화를 이뤄내겠다.

-공약으로 내세운 ‘실력광주’ 유지와 ‘입시지옥’ 해소는 딜레마가 아닌가.

▲사실 가장 큰 고민이면서도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다. 우선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심화학습을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에 맡기겠다. 학교에서 붙잡아두지 않으면 실력이 떨어

교육과 ‘실력광주’가 함께 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조금만 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면 실력과 행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본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 시기는 언제인가.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은 빠른 취임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중학생은 2011년부터 추진하겠다. 다만 광주시의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에게

“교육비리 신고 직통전화 ‘원아웃제’ 도입”

“참교육·실력광주 함께 가도록 제도 보완”

진보나 보수 등 한쪽으로 가면 안된다. 전체적 의견을 받아들여 보수와 진보의 조화를 이뤄내겠다.

-공약으로 내세운 ‘실력광주’ 유지와 ‘입시지옥’ 해소는 딜레마가 아닌가.

▲사실 가장 큰 고민이면서도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다. 우선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심화학습을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에 맡기겠다. 학교에서 붙잡아두지 않으면 실력이 떨어

교육과 ‘실력광주’가 함께 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조금만 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면 실력과 행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본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 시기는 언제인가.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은 빠른 취임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중학생은 2011년부터 추진하겠다. 다만 광주시의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에게

“교육비리 신고 직통전화 ‘원아웃제’ 도입”

“참교육·실력광주 함께 가도록 제도 보완”

“교육비리 신고 직통전화 ‘원아웃제’ 도입”

“참교육·실력광주 함께 가도록 제도 보완”

진보나 보수 등 한쪽으로 가면 안된다. 전체적 의견을 받아들여 보수와 진보의 조화를 이뤄내겠다.

-공약으로 내세운 ‘실력광주’ 유지와 ‘입시지옥’ 해소는 딜레마가 아닌가.

▲사실 가장 큰 고민이면서도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다. 우선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심화학습을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에 맡기겠다. 학교에서 붙잡아두지 않으면 실력이 떨어

교육과 ‘실력광주’가 함께 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조금만 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면 실력과 행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본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 시기는 언제인가.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은 빠른 취임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중학생은 2011년부터 추진하겠다. 다만 광주시의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에게

“교육비리 신고 직통전화 ‘원아웃제’ 도입”

“참교육·실력광주 함께 가도록 제도 보완”

진보나 보수 등 한쪽으로 가면 안된다. 전체적 의견을 받아들여 보수와 진보의 조화를 이뤄내겠다.

-공약으로 내세운 ‘실력광주’ 유지와 ‘입시지옥’ 해소는 딜레마가 아닌가.

▲사실 가장 큰 고민이면서도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다. 우선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심화학습을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에 맡기겠다. 학교에서 붙잡아두지 않으면 실력이 떨어

교육과 ‘실력광주’가 함께 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조금만 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면 실력과 행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본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 시기는 언제인가.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은 빠른 취임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중학생은 2011년부터 추진하겠다. 다만 광주시의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에게

“교육비리 신고 직통전화 ‘원아웃제’ 도입”

“참교육·실력광주 함께 가도록 제도 보완”

진보나 보수 등 한쪽으로 가면 안된다. 전체적 의견을 받아들여 보수와 진보의 조화를 이뤄내겠다.

-공약으로 내세운 ‘실력광주’ 유지와 ‘입시지옥’ 해소는 딜레마가 아닌가.

▲사실 가장 큰 고민이면서도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다. 우선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심화학습을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에 맡기겠다. 학교에서 붙잡아두지 않으면 실력이 떨어

교육과 ‘실력광주’가 함께 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조금만 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면 실력과 행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본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 시기는 언제인가.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은 빠른 취임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중학생은 2011년부터 추진하겠다. 다만 광주시의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에게

“교육비리 신고 직통전화 ‘원아웃제’ 도입”

“참교육·실력광주 함께 가도록 제도 보완”

진보나 보수 등 한쪽으로 가면 안된다. 전체적 의견을 받아들여 보수와 진보의 조화를 이뤄내겠다.

-공약으로 내세운 ‘실력광주’ 유지와 ‘입시지옥’ 해소는 딜레마가 아닌가.

▲사실 가장 큰 고민이면서도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다. 우선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심화학습을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에 맡기겠다. 학교에서 붙잡아두지 않으면 실력이 떨어

교육과 ‘실력광주’가 함께 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조금만 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면 실력과 행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본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 시기는 언제인가.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은 빠른 취임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중학생은 2011년부터 추진하겠다. 다만 광주시의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에게

“교육비리 신고 직통전화 ‘원아웃제’ 도입”

“참교육·실력광주 함께 가도록 제도 보완”

진보나 보수 등 한쪽으로 가면 안된다. 전체적 의견을 받아들여 보수와 진보의 조화를 이뤄내겠다.

-공약으로 내세운 ‘실력광주’ 유지와 ‘입시지옥’ 해소는 딜레마가 아닌가.

▲사실 가장 큰 고민이면서도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다. 우선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심화학습을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에 맡기겠다. 학교에서 붙잡아두지 않으면 실력이 떨어

교육과 ‘실력광주’가 함께 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조금만 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면 실력과 행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본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 시기는 언제인가.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은 빠른 취임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중학생은 2011년부터 추진하겠다. 다만 광주시의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에게

“교육비리 신고 직통전화 ‘원아웃제’ 도입”

“참교육·실력광주 함께 가도록 제도 보완”

진보나 보수 등 한쪽으로 가면 안된다. 전체적 의견을 받아들여 보수와 진보의 조화를 이뤄내겠다.

-공약으로 내세운 ‘실력광주’ 유지와 ‘입시지옥’ 해소는 딜레마가 아닌가.

▲사실 가장 큰 고민이면서도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다. 우선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심화학습을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에 맡기겠다. 학교에서 붙잡아두지 않으면 실력이 떨어

교육과 ‘실력광주’가 함께 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조금만 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면 실력과 행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본다.



9일 오후 고흥군 영남면 남열해수욕장에 모인 주민과 관광객들이 나로호 발사 연기 소식이 전해지자 아쉬운 표정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고흥=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아! 또... 아쉽다”

나로호 발사 연기 1만여명 허탈한 발걸음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 2차 발사일인 9일 고흥군 영남면 남열해수욕장에 모인 1만여명의 주민과 관광객들은 나로호 발사 연기 소식이 전해지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남열해수욕장에 운집한 인파들은 저마다 손에 태극기를 권채 ‘다음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날 나로호 발사를 고대하던 관광객들은 오후 2시30분께 남열해수욕장에서 열린 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공개방송에서 ‘발사 연기’ 소식을 들은 뒤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단체로 남열해수욕장을 찾은 초등중학교 학생들은 현장에서 ‘발사가 미뤄졌다’는 방송이 흘러나오자 일제히 탄식을 쏟아냈다.

전날도가 추천한 관광지인 고흥동일면 우주체험센터와 봉남동대·봉래면 덕암산 정상 등에 모인 수백여명의 관광객들도 크게 허탈해 했다.

또한 여수시 화정면 남도와 사도·금오도 등 섬지역을 찾은 이들은 물론 5만원을 내고 국내 유일의 범선 ‘코리아나호’에 승선한 관광객들도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전수지(14·고흥군 도양읍)양은 “어제 1~3학년 학생들 가운데 33명이 재미있기로 선발돼 단체로 발사현장을 찾았다”며 “기대가 너무 컸던 만큼 실망감도 크다”고 말했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손을 잡고 현장을 찾은 강상원(36·화순군 화순읍)씨는 “아들의 현장학습을 위해 담임 선생님의 허락하에 고흥을 찾았는데, 발사가 연기돼 아쉽다”고 말했다.

정현주(여·31·광주시 북구 오치동)씨는 “한국 최초의 우주인인 이소연 박사와는 중학교 동창이어서 우주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다음에는 반드시 발사에 성공해서 로켓이 힘차게 하늘로 날아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고흥=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나원침 (8043) 김장동



옛 경영진족 조선대동창회

‘자살 강사’ 지도교수 고발

조선대 옛 경영진족 인사들로 구성된 조선대동창회가 ‘조선대 시간강사 자살사건’과 관련, 유서에 언급된 지도교수를 9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동창회는 고발장에서 “지도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 자살한 시간강사 서모(45)씨에게 압력을 행사해 논문대필 및 연구부정이 이뤄졌다. 업무방해죄, 강요죄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김희기자 kimho@

“맥주잔에 손가락 넣었다” 먹살잡이

○“맥주잔을 손가락으로 집어 왔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50대 손님과 이를 본 40대 식당주인의 아들이 먹살잡이를 해 나란히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주모(51)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50분께 광주시 서구 양동 이모(68)씨의 식당에서 자신이 주문한 맥주를 가져오던 이씨가 맥주잔에 손가락을 넣어 들고 왔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이씨의 아들(41)과 서로 먹살을 잡아 흔들어 밀어 넣으려했다는 것.

○경찰에서 주씨는 “맥주잔을 손바닥으로 감싸서 들고와야 손가락을 집어 넣으면 위생상 좋지 않다”고 주장.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전주언 서구청장 구속

검찰, 인사비리 수사 확대

6·2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전주언(62) 광주 서구청장이 당선된 지 불과 1주일 만에 인사비리로 구속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재구)는 9일 공무원 승진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청장을 구속했다. 6·2 선거 자치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전 청장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청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급 승진 대상자인 A씨가 건넨 3000만원을 서구청 고위 간부 B씨를 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넨 지 5개월 뒤인 지난 1월 11일 정기 인사에서 실제 5급으로 승진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인사비리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구청 간부 B씨가 “3000만원을 받아 구청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함에 따라 전씨가 다른 공무원에게도 추가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전 청장은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 치르나

자진사퇴 땀 7월 28일
대법판결 땀 내년 4월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될 경우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지방자치법에는 단체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급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다음주 중으로 전 청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법원의 판결도 주목된다. 전 청장은 이미 관권선거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법원이 두 사건을 병합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전 청장에 대한 당선자직위 상실 여부가 이르면 9월 말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 청장이 9월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을 경우 서구청장은 내년 4월 27일 재선거를 통해 선출하게된다. 다만 전 청장이 이달 28일내에 자진사퇴를 한다면 7월 28일에 재선거가 열린다.

한편 전 청장은 1실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더라도 자신이 사퇴하지 않는 한 확정 판결때까지 직위 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등교길 초등생 납치 성폭행

서울서 강간 전과 40대 구속

서울 영등포경찰은 9일 초등학생을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로 김모(4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께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동교하던 A(8)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의 부모는 딸이 귀가 시간이 돼도 돌아오지 않자 학교로 가 인근에

설치된 CCTV에 딸이 납치되는 장면이 찍힌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김씨가 잠든 사이 혼자서 학교로 돌아와 울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과 부모에게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A양은 다음날 새벽까지 대어섯 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을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여년 전 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정신병력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Hanbit Gosihakwon (한빛고시학원) featuring a building image and promotional text. Text includes: '개강 7월 1일', '압도적 1위 시설 합격을 강시킨', '남보다 빠른 합격의 기회는 바로 여름방학이다!', '공무원 합격 전라 선행 대회', '일시: 6월 25일(금) 14:30 ~ 18:00', '타원과 비교를 거부합니다. 5년연속 호남지역 최다합격자 및 수석합격자 배출', '광주지역 수강생 80% 이상 석권',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북구청앞 062-234-0234)'